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차 세미나- 지방선거 후보에게 바란다

“지역 업체·제품 사랑해야 기업 성장하고 일자리 늘어난다”

광주·전남 리더들은 6·4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 약속은 꼭 지키라며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교육감 후보들에게는 학교와 교장·교사를 믿고 권한과 책임을 쥐야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지난 13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호텔 연회장에서 ‘6·4지방선거 후보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지역 리더들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교육·복지·문화·경제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적 지적과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사회는 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 주제발표는 경제분야 김성진 영암마트 대표와 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 복지분야 김명원 메디타워제일내과병원 대표원장, 교육분야 김연홍 다스리가구백화점 대표, 문화분야 이영민 문화공방DKB 대표이사가 맡았다.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과 김숙희 삼정초 교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토론에 참여했다.

◇김성진 영암마트 대표(경제분야)= 지역 기업과 제품을 사랑해야 한다. 영암마트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의 홍보물을 연간 2000만부 제작·배포하며, 지역제품 사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기아자동차를 연간 100대 가량 구매하고 있다. 올해도 이미 40여대 샀다. 금융 거래도 지역기업인 광주은행을 이용한다. 주류는 진로보다는 보헤·카스를 소비한다. 지역에서 흑자를 낸 만큼 매년 10억원 가량을 환원한다. 영암마트가 커지면서 가족이 1300명,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8000여명이 됐다. 모두가 지역민들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제품을 사랑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제품의 품질도 한 단계 올라간다. 정치인들도 당선되면 지역기업·지역제품을 사랑하고 지원해달라.

◇김명원 메디타워제일내과병원 대표원장(복지분야)=복지는 보이지 않는 투자다. 그 좋은 예가 전남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이다. 투자 당시엔 왜 특정병원을 지원하는지, 투자만큼 효용성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복지 투자의 당위성을 느끼게 됐다.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 복지는 정책과 함께 관리·감독 또한 중요하다. 복지 전달 공무원이 없어 안타깝다. 교육



사회=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 김성진 <영암마트 대표> 문병우 <서광주농협조합장> 김명원 <메디타워병원장> 김연홍 <다스리가구 대표> 이영민 <문화공방DKB 대표>



지난 13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2차 세미나에 참석한 원우들이 ‘6·4지방선거 후보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최혜기기자 choi@kwangju.co.kr

복지는 보이지 않는 투자... 전담공무원 필요
교장·교사에 권한·책임주고 인성교육 강화

과 복지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인사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니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전문 공무원을 육성했으면 한다.
◇김연홍 다스리가구백화점 대표(교육분야)=고3 쌍둥이를 둔 학부모다.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먼저, 등교시

간을 8시30분으로 늦추면 한다. 너무 일찍 등교하다보니 피곤이 쌓여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교장·교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담임선생만큼 아이를 잘 아는 교육자는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

농협-지자체 함께 로컬푸드 매장 개설하자
광주·전남 이벤트 지역업체 참가 길 터줘야

다. 특히 전문화된 강사의 발굴과 육성이 절실하다. 네 번째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상냥하게 웃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이론이 아닌 실습 위주로 해야 한다. 몸에 배어야 재난이 닥치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경제분야)=농업을 무시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없다. 선진국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보호하고 지킨다.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선거 때만 되면 농업과 농촌을 강조하지만, 끝나면 ‘나를 따라’하는 인스턴트 정치인이 많다. 유권

자들이 후보들의 공약과 진정성을 검증하고 지켜봐야 한다. 광주는 도시농업지역이다.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해야 한다. 농협과 지자체가 로컬푸드 사업을 함께 했으면 한다.
◇이영민 문화공방DKB 대표이사(문화분야)=내년이면 광주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한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문화시설이다. 지역 예술인들이 총동원돼 어떤 콘텐츠를 담을 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전당 사업에 지역 예술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또 우리 지역에 메가톤급 이벤트가 많다. 여수 엑스포·순천만 정원박람회·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봉쇄돼 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개·폐막식 행사에 참가하려면 18억원의 후원금으로 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업체는 입찰도 낼 수 없는 금액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 입찰 참여조차 막은 꼴이다.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토론)=미국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날짜를 지정해 소의 계층을 무료로 진료한다. 영어를 못하면 통역까지 딸린다. 그러나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저소득빈곤층을 위한 진료를 하지 않는다. 특히, 광주 남구 노대동의 전남대병원 관절센터는 저소득빈곤층의 퇴행성 관절질환을 치료하기 건립했지만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만큼 빈곤층 무료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감독해야 한다.
◇김숙희 삼정초 교장(토론)=선생도 학생도 믿는 만큼 한다. 어떤 좋은 시설이나 교육과정보다 선생의 열정만은 못하다. 교장·교사에게 자율권을 주면 믿는 만큼 잘할 것이다. 감시를 많이 하는 학교는 선생이 교장을 따르지 않는다. 선생이 교장을 따르지 않는데 아이들이 선생을 따랐는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한다. 학부모도 학교와 선생을 믿어줬으면 한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토론)=사회의 핵심가치는 공공성이다. 공공성이 작용하지 않으면 개인은 무기력해진다. 그렇다고 국가가 공공성을 담보해주는가 그렇지 않다. 자치역량을 키워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선거가 공공성 확보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지역의 분권화가 가능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 모델을 광주에서 만들었으면 한다. 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Grand Opening Special Discount Event) for '이지에우리' (Eziweuri). It features a woman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and lists various services like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weddings, birthdays, etc.). Contact info: T.062-228-6330.

Advertisement for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EG Gold Coat Ezi Gold Coat). It promotes '숲속의 상쾌함을 느껴보세요!' (Experience the freshness of the forest!) and lists services like '단열, 악취제거, 결로방지' (insulation, odor removal, mold prevention). Contact info: T.041-634-9909.